

40개국 이상에서

여성에게 고문자행

엠네스티 보고서

【런던=로이터 연합】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는 9일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살인과 강간·고문·불법적 구금 등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개최 중인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된 사면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세계 곳곳에서 고문기술자와 처형집행인·교도관들은 잔인하게 여성들을 다루고 있으며, 강간 등 특정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사면위가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발표한 이 보고서는 여성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들이 교도관에게 강간당하고 임신한 여성이 구타당하는가 하면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나 형제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밝

남편 체포수단 이용

정치운동 불법 투옥

반란진압 병자 살인

경찰서에서의 강간

점령지내 여성 학대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여성 정치운동가들이 불법적으로 투옥되고, 모리타니의 흑인여성들이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으며, 터키 여학생들은 고문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경찰에 의한 강간 사건이 거의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페루의 일부 지역에서 반란진압의 전권을 부여받은 보안군들에 의한 강간이 널리 자행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자식이나 남편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87년 이후 70명 이상의 여성이 체포됐으며, 이스라엘 점령지 안의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수사관들로부터 강간위협과 성적인 모욕을 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사면위는 "강간은 많은 사회에서 불명예로 간주돼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 보장 때문에 때때로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회 한 분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할 경우 어느 누구의 인권도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90.12.30

주부 정치의식

62%가 소신대로

여원, 서울 20~50대 조사

서울에 사는 주부의 48.8%가 '야당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51.4%의 주부가 91년엔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여성지 <여원>이 지난 3~15일 서울에 사는 20~50대 주부 6백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부 정치의식' 조 조사에서 밝혀졌다.

거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선 26%가 '절대로 안된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나 60.5%는 묵인·허락하는 쪽이었다.

91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물가안정을 으뜸으로 꼽았고, 그 다음은 민생치안·정치화합 차례였다.

정치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선 39%가 인품을 들었고, 소속정당·학력·연변이 차례로 꼽혔다. 그밖에 사생활,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

6공 불신 67%...물가·부동산투기 불안

야당통합 48.8%지지·정치인 인품중시

조사 결과 6공 출범 이후의 나라형편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67.1%가 '나빠진 면이 많다'고 답해 6공화국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7.8%가 물가 폭등·부동산 투기 등 경제적 불안정을 꼽았고, 22.8%는 당리당락·권력다툼 등 정치적 요인을 들었다.

또 37.4%의 주부가 '3당 통합은 잘못된 일'이라고 꼽았다. '전 전대통령이 연희동으로

출신지, 외모·웃차림, 나이 등도 정치인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과 정치적 의견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62.4%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15.7%는 '합의해 결정한다'고 답했다. '남편을 설득한다'는 9.6%였고, '남편의 뜻에 따른다'는 7.8%에 지나지 않아 주부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